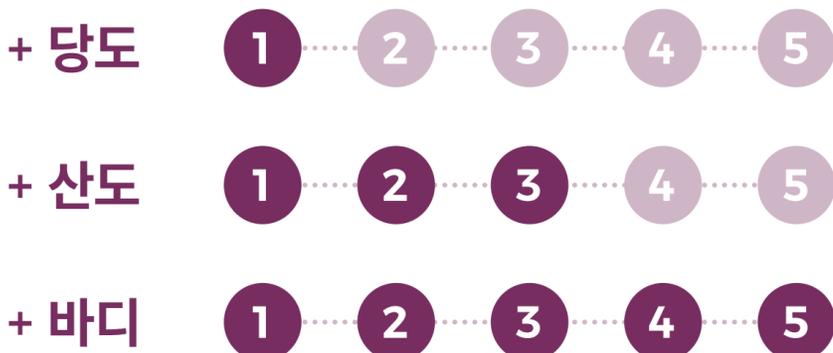




Santa Cecilia, Noto DOC

산타 세실리아

시칠리아 토착포도품종을 최상급의 품질로 만들어낸 시그니처 와인



Type	레드 와인
Country / Winery	이태리 > 시칠리아 / 플라네타
Grape Variety	네로 다볼라 100%
Capacity	750ml
Food Matching	모든 종류의 육류요리, 칠리 페퍼에 재워둔 돼지고기 요리, 풍미가 진한 생선요리

Information

밝고 활기찬 프루티한 캐릭터, 스파이시한 노트, 오렌지 필 같은 산뜻함과 파워풀한 풍미를 두루 갖춘 매력적인 와인이다. 잔에 따르자마자 잘 익은 블랙베리, 체리의 과일 풍미와 발사믹 노트를 느낄 수 있으며 촘촘하게 잘 다듬어진 탄닌의 우아한 질감이 마치 중저음의 바리톤 같은 느낌을 준다.

14개월 간 프랑스 알리에산 오크통에서 숙성하며, 새 오크는 사용하지 않는다. 8~10년 더 두고 숙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와인이다.

파워풀하면서도 우아하고 섬세한 맛을 갖고 있어 음식 매칭의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다.

Awards

- + 2016 | Wine Advocate 94점
- + 2010 | Gambero Rosso Tre Bicchieri
- + 2008 | Decanter World Wine Awards 은메달
- + 2007 | Decanter World Wine Awards 은메달

Tip

시칠리아를 대표하는 포도품종 네로 다볼라(Nero d'Avola)를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와이너리인 플라네타가 최상의 품질로 만든 시그니처 와인이다. 오랜 연구 끝에 이 품종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아볼라(Avola) 마을 인근의 오래된 포도밭을 선정해 1997년 첫 빈티지를 선보였다.